

Sermon: Spiritual Blessings in Christ (Ephesians 1:1-14)

Introduction:

It is a blessing to be able to open God's word this evening and to kick off our series on the book of Ephesians, very specifically on what can we learn about the church. And I am so excited because of what this text has to say to us today. My prayer is that you would be excited as well, as you consider and meditate on his word, so that you may grow in your love for God and that you would worship him and praise him. And that is the necessary application for this text which we will see when we dive into his word.

오늘 저녁 특별히 교회에 대해 알아보기 위한 에베소서 시리즈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해 주시는 말씀 때문에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제가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것에 기대를 하셔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자라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것은 오늘 말씀의 적용포인트 입니다.

Let me pray first and ask God to bless us as we come to his word.

기도함으로 우리가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주시길 구하겠습니다.

We live in a society, a culture with massive identity issues. It doesn't take long to look around and see a culture, a society which is lost. If you look at some of the current trends, you will quickly see that many people base their identity on what they do or their sexuality. Many people believe that gender identity is fluid. They could not be more wrong. Without a clear understanding of one's identity, it is very easy to get lost and not have a clear sense of direction.

우리는 정체성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회와 문화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길을 잃은 문화와 사회를 보게 될 수 있습니다. 요즘의 트렌드를 보면 사람들이 그들이 하는 일에, 또는 성적 취향에 정체성을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별이 유동적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혼돈에 빠지기가 쉽고 삶의 방향성을 잃기 쉽습니다.

Unfortunately, the church and Christians also struggle with a massive identity problem. What is the church? What does it mean to be a Christian? Who is the church? What are Christians and the church supposed to do? There is so much confusion because of all the different denominations, "churches" and "Christians" out there. The average Joe is unable to make a distinction from one "church" to another. They are unable to know whether someone is a Christian. And that's why now we have so many labels. "Evangelical Christians". "Born-again Christian". "Protestant Christian". "Reformed Christian". It seems that we need to label ourselves to clarify our identity. To help people have a clearer picture of who we are. This confusion has haunted the church.

안타깝게도 교회와 크리스찬들도 굉장한 정체성에 대한 문제로 허덕이고 있습니다. 교회란 무엇일까요? 크리스찬으로 사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교회는 누구 일까요? 교회와 크리스찬들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일까요? 많은 교단들, "교회들" 그리고 "크리스찬"들 때문에 많은 혼란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한 "교회"와 다른 교회의 다른 점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누군가가 크리스찬 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꼬리표를 붙입니다. “복음 주의”, “거듭난”, “개신교” 크리스찬들. 우리의 정체성을 확실히 하기 위해 이런 이름들을 붙여야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 더 확실히 알 수 있게 말입니다. 교회는 이 혼동가운데 시달리고 있습니다.

Many people in our churches have lost their purpose. Many Churches and Christians have lost their identity and base their identity on anything but Christ. Churches and Christians are more known for their programs, their social work, their community work, instead of the glorious identity that we have in Jesus. Many Christians and churches advocate a program just because that’s what every other church is doing. Without a clear understanding of what it means to be a Christian, what it means to be the church, it is impossible to move in the direction that God has designed and saved us for. God makes it very clear why the church and Christians exist, he has made it very clear who is in the church. He has made it very clear on what their characteristics are. Unlike gender fluidity, the Church’s identity, Christian identity is not fluid. And like I said earlier, the content of our text, should lead us to the praise of God. I wonder what you think the church is. I wonder what you think it means to be a Christian. Paul has 5 Theological, biblical truths that we must ground our identity on.

교회 안의 많은 사람들은 목적을 잃었습니다. 많은 교회들과 크리스찬들은 그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렸고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에 정체성을 두고 있습니다. 교회들과 크리스찬들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광스러운 정체성이 아니라 그들의 프로그램 그리고 사회 봉사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많은 크리스찬들과 교회들은 그저 다른 교회가 하는 프로그램을 따라하기만 합니다. 크리스찬으로 사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확실히 알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방향으로 가는 것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교회와 크리스찬들이 존재하는지, 누가 교회인지, 그리고 이들의 특징을 확실히 보여주십니다. 유동적 성별과는 달리 교회의 정체성, 크리스찬의 정체성은 유동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에 말했듯이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이끌어 갈 것입니다. 여러분은 교회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 지, 크리스찬으로서 사는 것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는 지 궁금합니다. 바울은 우리의 정체성의 기초가 될 5 가지의 신학적인, 성경적인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 **Chosen** before the foundation of the world
창세전에 택함을 받음
2. **Adopted** as sons through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양자 삼으심
3. **Redeemed** through his blood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시켜주심
4. **Revealed** the mystery of his will
하나님의 비밀의 뜻을 알려주심
5. **Made an inheritance** and **Sealed** with the guarantee of the Holy Spirit
기업이 되고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고 보증을 받음

Christians are Chosen before the foundation of the world:

Verse 1 tells us that Paul is writing this letter to the *Saints* who are in Ephesus. These saints are people who have put their faith in Jesus’s death and resurrection. They are people who put their hope in him. They are a people who have committed their whole life *in Christ Jesus*. And so, we already have a description of who

Christians are. In fact, the title of *Saints* gives this idea of the holy ones, the ones who are set apart by God, who are called to live a holy life. The immediate implication is that they are called to pursue holiness, be holy for God is holy. So, if there is anything that you get out of this text, be holy for God is holy.

1 절은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성도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믿음을 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께 소망을 둔 사람들이고, 그들의 모든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크리스찬에 대한 설명을 벌써 보게 됩니다. ‘성도’ 라는 명칭은 거룩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거룩한 인생을 살도록 구별하신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나오는 적용 포인트는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도 거룩해야 합니다.

So what Paul has to say in this letter is applicable for the church today, for Christians today. For the saints who are faithful in Jesus Christ. He sends his grace and peace to them in verse 2, and from verse 3 to 14, he goes into a Doxology, a string of praises to the “God and Father of our Lord Jesus Christ”. In the Greek text, it is just one sentence and so I think the idea is that Paul is giving praise after praise after praise. He can’t stop worshipping God for so many different things.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오늘의 교회, 오늘의 크리스찬들 에게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신실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2 절에서 그의 은혜와 평화를 그들에게 보내고 3 절에서 14 절까지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는 찬가로 이어집니다. 그리스어 원문에서는 한 문장이기 때문에 바울이 찬송에 찬송을 끊임없이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일들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Why? Why does he say in verse 3, “Blessed be the God and Father of our Lord Jesus Christ”? He says that because God the Father has “Blessed us in Christ”. He has initiated the blessings in Jesus. He has given us Jesus who by his death and resurrection, allowed the saints, the church, the people who are faithful in Christ Jesus, to receive all the “Spiritual blessings in the heavenly places”. Not Just some of the spiritual blessings. Not just half of the spiritual blessings. But friends, every single spiritual blessing that there is in Jesus Christ. God has not withheld himself from all that Christ can give. But the question is, What are these spiritual blessings? When we think about blessings, most people associate it with financial blessings, relationship blessings, material blessings. Many people will say, God has blessed me with a new job. God has blessed me with a new house. God has blessed me in my studies. God has blessed me with my beautiful wife. God has blessed me with life. But if you read carefully, they are not physical blessings. They are not just normal blessings. They are spiritual blessings. And it gets qualified by “in the heavenly places”. Not on the “earthly places”. Although that doesn’t mean the spiritual blessings don’t have present world implications. What Paul has in mind, what Paul is thinking, is the eternal, spiritual, heavenly blessings, that are received by the spirit when we have “union with Christ”. He is thinking about all the spiritual blessings that Christ provides. Which is ours now. And we will see some of them in our text.

왜 일까요? 바울은 왜 3 절에서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라고 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을 시작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죽음과 부활으로 예수님을 주셨고, 성도들, 교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신실한 사람들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습니다. 몇가지의 신령한 복이

아닙니다. 신령한 복들 중 반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의 모든 신령한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가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남기지 않고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물어봐야 할 것은 이 신령한 복이 무엇인가 입니다. 우리들은 복에 대해 생각 할 때 경제적인 복, 관계 또는 물질적인 복을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직장, 새 집, 학업, 아름다운 아내 그리고 인생으로 축복해 주셨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자세히 본문을 읽어보면 물질적인 복이나 다른 복이 아니라 신령한 (영적인) 복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에 속한” 복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복입니다. 그렇다고 신령한 복이 이 땅에서 적용되지 않는 복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생각하고 있는 복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 되었을 때 성령을 통해 받게 되는 영원한, 영적인 천국의 복들 입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영적인 복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의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에 이것들이 어떤 복인지에 대해 더 나와있습니다.

That is an amazing promise and truth. Christians, the church are people who have been blessed with every single spiritual blessing that are in Christ Jesus. And that is great. That is amazing. But do you know what is even more amazing, than having them all in Christ... having them guaranteed and secured before the foundation of the world. Verse 4 says “even as he chose us in him before the foundation of the world, that we should be holy and blameless before him”. The churches identity, Christians were secured before the world ever began. It is something that we can't fully understand. How God in his goodness and in his grace, and his love has secured Christians in him. And it is a humbling fact as well. God didn't choose us because we were good people, because we were holy and blameless, because of our own merit, but purely by his grace, and he has called Christians *to be* holy and blameless before him. We are called in this life time to pursue holiness, because we are saints, and we are called to be blameless before him, and when we meet with our Lord and Saviour we will indeed be perfectly holy and blameless before him. All the amazing spiritual blessings that there are in Christ were for us before we were born, before the world began, before time began. God's church and people were Chosen before the foundation of the world. Their identity is secured in God's hand.

이것이 놀라운 약속과 진실입니다. 크리스찬들, 즉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을 하나하나 다 받은 사람들 입니다. 이것은 굉장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복을 모두 받은 것 보다 더 놀라운 것이 무엇 인줄 아십니까? 창세 전부터 이 복들을 보장받은 것 입니다. 4 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교회의 정체성은, 크리스찬들은 창세 이전부터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좋으신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크리스찬들을 선택하고 지키셨는지... 우리를 겸손하게 하는 진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좋은 사람이라서, 거룩하고 흠이 없거나 우리의 가치 때문에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도록 부르심을 받았고 또 우리의 주님 그리고 구원자를 만났을 때 그의 앞에서 완벽하게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거룩함을 쫓는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이 놀라운 신령한 복들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창세 전부터 우리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그의 백성들은 창세 전부터 선택을 받은 것입니다. 그들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손 안에 안전합니다.

Christians are Adopted as sons through Jesus Christ:

One of the spiritual blessings that Christ has blessed us before the foundation of the world, is being adopted as sons through Jesus Christ. Verse 5 to 6 says “In love ⁵he predestined us for adoption to himself as sons through Jesus Christ, according to the purpose of his will, ⁶to the praise of his glorious grace, with which *he has blessed us in the Beloved*”. In his love, he predestined, he chose us before the foundation of the world, to be adopted to himself as sons through Jesus Christ. What Jesus Christ has purchased for us on the cross, is an amazing blessing to be children of God. Christians are children of God. Sons of God. The church is made up of the children of God. We are brought into a personal relationship with the creator of the universe who is now our heavenly father. Adoption as sons was one of the privileges that Israel had (Roman 9:4), but now it belongs to those who have put their faith in Christ Jesus. And that is a praise worthy truth. Galatians 4:1-7 tells us that apart from Christ we are slaves, but in Christ, “we might receive adoption as sons. And because you are sons, God has sent the Spirit of his Son into our hearts, crying “Abba! Father!”. So you are no longer a slave, but a son, and if a son, then an heir through God.” (Galatians 4:5-7). There is a status change.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 중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심입니다. 5 절에서 6 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정하시고 창세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아들들이 되도록 선택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값을 치루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창조자, 그리고 이제 우리의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의 개인적인 관계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것은 이스라엘이 가진 특권이었습니다 (롬 9.4). 하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을 두는 모든 사람들의 것입니다. 이것은 찬양 받기 합당한 진실입니다. 갈라디아서 4:1-7 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없이는 종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 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갈 4:5-7). 신분의 변화가 있습니다.

Our sonship equals to being co-heirs with Christ. It equals to being able to cry out to God as our Abba Father. It means that we can draw near to the throne of grace with confidence, pleading to our heavenly father and bringing all our concerns and petitions to him. For the fatherless, there is a true, perfect heavenly father, who will never leave them or forsake them. I grew up without having a father figure in my life. And it is very common for many people who come from a broken family or a father who passed away while they were young, to be bitter. But one of the most encouraging things for me, is knowing that I do have a father. He is my heavenly Father. Who disciplines and loves me. And that truth is the same for those who do have a father. And this is only made possible through Jesus Christ who is the beloved. The beloved, has blessed his people from all eternity to have an intimate, personal relationship with God the Father. And it was God’s will, it was his design. In the ESV it says according to the purpose of his will, I think the better translation for purpose would be “good pleasure”. It was his good pleasure, his delight to impart his blessings to his children. It pleased God to adopt his people. This adoption is for the praise of his glorious grace.

우리가 아들됨은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인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 있게 은혜의 왕좌로 다가가 하늘에 아버지께 구하며 우리의 모든 걱정과 청원을 내놓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없는 사람들이게는 그들을 절대 떠나지 않을 진정하고 완벽한 하늘의 아버지가 계신 것입니다. 저는 아버지가 없이 자랐습니다. 깨어진 가정이나 어릴 적 아버지가 돌아가신 많은 사람들은 흔히 불만을 품고 살아가기 쉽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가장 힘이 되는 것은 저에게는 아버지가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는 저를 훈육하시고 사랑하시는 저의 하늘의 아버지이십니다. 이것은 아버지가 계신 사람들에게도 적용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가 사랑하시는 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가 사랑하시는 자께서는 그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하고 개인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바람이었고 계획이었습니다. ESV 번역에서는 “according to the purpose of his wil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더 정확한 번역은 “good pleasure” 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는 축복을 그의 자녀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기쁨과 즐거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자로 삼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가 찬양 받기 위한 것입니다.

Christians have been Redeemed through his blood:

Not only has he chosen his people before the foundation of the world, and adopted them as sons because it pleased him, but he has also “In him” given redemption through his blood, the forgiveness of your trespasses. Christ has given restoring grace. We can give praise to God for choosing us and loving us by adopting us, we can also praise him and rejoice in him for freely and graciously delivering us from our trespasses through the sacrificial death on the cross. And we know this. For all have sinned and fall short of the glory of God (Romans 3:23), but by his grace, we are redeemed, forgiven, by the blood of Jesus Christ, the beloved. Christ took our punishment on the cross. He satisfied the wrath of God. He took the just punishment for our sins because “The wages of sin is death, but the gift of God is eternal life through Jesus Christ our Lord” (Romans 6:23). He has purchased for us new life in him. There was no other way for sinners to be saved.

하나님께서서는 창세 전에 그의 백성을 택하시고 기쁨으로 양자 삼으신 것뿐이 아니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를 사해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택하시고 양자로 삼으심으로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값없이 은혜로 십자가에서 희생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해주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압니다. “모든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롬 3:23).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구원을 받고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형벌을 가져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노여움을 만족시켜 주셨습니다. “죄의 삯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롬 6:23). 그렇게 때문에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의 벌을 가져가신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의 새로운 삶을 주시려고 값을 치루신 것입니다. 죄인들이 구원 받을 다른 방법은 없었습니다.

We now have liberation, freedom from the bondage of sin. And it was according to “the riches of his grace”. The act on the cross, was not by chance, but it is by design. The rescue from divine judgement of our trespasses against the Almighty, Holy, Just God is purely, and wholly “by the riches of his grace,⁸ which he lavished upon us”. Paul doesn’t just say by ‘his grace which he gave us.’ This divine grace is rich. It is according to God’s richness. Think about for a second. It is one thing to give some of your riches away. It is

another thing to give according to your riches. God in his infinite goodness, in his infinite love, in his infinite glory, can give and show favour to the undeserving according to his infinite grace.

우리는 이제 죄로부터 해방되고 자유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의 은혜의 풍성함” 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우연이 아니라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공정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음은 온전히 “우리에게 넘치게” 주신 “그의 은혜의 풍성함” 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그저 ‘그가 주신 그의 은혜’ 로 인한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 거룩한 은혜는 풍성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풍성함을 따르십시오. 한번 생각해 봅시다. 풍성함의 부분을 주는 것과 풍성함을 따라 주는 것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무한한 좋으심, 무한한 사랑, 무한한 영광 안에서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그의 무한한 은혜를 따라 호의를 베푸십니다.

He is rich indeed. He does not just reach out and give a penny out of his riches, but he reaches out and pours out and rains down his forgiving grace upon his people. There is no sin too great, too large, too deep for God to forgive. There is redemption, underserving saving grace in the blood of Christ Jesus. He has not withheld his abundant, infinite love and grace from his people. Brothers and Sisters, this is a profound, significant truth. Praise be to God, that he has poured out his grace, lavished upon us, the redeeming blood of Christ. We no longer have any punishment for our sins. But we have true life now in Jesus Christ our Lord and Saviour.

하나님께서서는 풍성하십니다. 그는 그의 풍성함의 부분만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손을 내밀어 그의 백성들에게 용서하시는 은혜를 부어 주시고 내려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기에 너무 크고 깊은 죄는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피에는 속량이 있고 자격없이 받는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풍성하심, 무한한 사랑 그리고 은혜를 남기지 않고 주셨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이것은 엄청나고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의 피를 아낌없이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신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로 인한 처벌이 없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 안에서의 참된 인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Christians have been Revealed the mystery of his will:

In fact, he has given us wisdom and insight, to know and understand the mystery of his will. He has made known to us the mystery of his will. You can know for sure he will do as he has said because His plan are from all eternity. He has revealed it to us in Christ. verse 9-10 “making known to us the mystery of his will, according to his purpose, which he set forth in Christ ¹⁰ as a plan for the fullness of time, to unite all things in him, things in heaven and things on earth.”. God has revealed to us the mystery of his salvation plan in Jesus Christ. He will also, in the fullness of time, unite the whole universe, and the whole church, all things, in heaven and on earth in him. What that means is that they will be under the cosmic headship of Christ who is supreme over all things. Like what John MacArthur said last week, Christ is the head of the church and he is also the head of the universe. We will join with all of creation, all of the angels in heaven, worshipping our Great God and King. Revelation 11:15 says “Then the seventh angel blew his trumpet, and there were loud voices in heaven, saying, “The kingdom of the world has become the kingdom of our Lord and of his Christ, and he shall reign forever and ever.”” Christ is Lord of all and he has saved us. And he has revealed this truth to us. If he is Lord of all, if he is the one who is ruling and has authority, then we the church, Christians need to live a life which is in submission to his authority. We need to live a life which is so plain to the world, that we do believe that Christ will one day unite all things to himself.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뜻의 비밀을 알고 이해할 수 있는 지혜와 통찰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실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 주셨습니다. 9-10 절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그의 구원 계획의 비밀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알려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때가 차면 온 세상을, 모든 교회를, 모든 것을 하늘과 땅에서 하나님 안에서 연합 시킬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이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존 맥아더가 말했듯이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시고 세상의 머리 되십니다. 우리는 모든 창조물과 모든 하늘의 천사들과 함께 우리의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의 왕을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1:15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그리스도는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구원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 주셨습니다. 그가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다스리시고 권위가 있으시면 우리는 교회, 크리스찬으로서 그의 권위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이 볼 때 너무 확연하게 그리스도께서 언젠가 오셔서 모든 것을 연합 시키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Our direction in life is a commitment to the Almighty. And that means, God’s purposes, his plans, his desires should also be our purpose, our plans and our desires. We should be living a life which is in pursuit of proclaiming the kingdom of God. Our decisions in life should be in light of the headship of Christ. Our decisions in our family, our school, our education, our work place, our church, is ultimately for the kingdom of God. Now that sounds like a lot of work. It might sound like a Christ-centred life style. A Christ-Centred church. But that’s the point. Christians and the church have forgotten this important truth. One of the truths which is foundational to our identity is the headship and lordship of Christ. Instead we have substituted Christ for ourselves. We are more inclined to be self-centred. And so, our decisions in life and in church are more human-focussed rather than God-centred. But we must remember we have a king we serve. And that he has blessed us with every spiritual blessings in Christ Jesus, and that we are part of God’s wonderful plan to unite all things to himself.

우리 삶의 방향은 전능하신 분에게 헌신하는 것 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목적, 계획 그리고 바램이 우리의 목적, 계획과 바램이 되어 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삶의 결정들은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에 비취져야 합니다. 우리의 가족, 학교, 학업, 직장, 교회에 있어서의 결정들은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이 것은 힘든 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 중심적인 교회로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포인트 입니다. 크리스찬들과 교회는 중요한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의 기본이 되는 사실 중 하나는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과 주인 되심 입니다. 대신 우리는 그리스도의 자리에 우리 자신을 놓았습니다. 우리는 자기중심 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과 교회에서의 결정들은 하나님 중심적이기 보다는 사람 중심적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섬겨야 할 왕이 계신다는 것 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과 연합 시키실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에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Christians are made an inheritance and Sealed with the guarantee of the Holy Spirit:

Paul is not done praising God. He now speaks about what Christ has done for the chosen remnant of Israel, the Jews who have put their faith in Christ Jesus. In verse 11-12, The pronoun “We” refers to Paul and his fellow Jewish believers. The “You” in verse 13, is referring to the Gentile Christian believers. The “Our” in verse 14 is including both groups. What Paul is saying in verse 11-12 is not translated well in our English translations. The ESV translates it to “we have obtained an inheritance”, meaning that Paul and the fellow Jewish Believers are obtaining an inheritance from God. The Greek text translates it as “we have been made an inheritance [by God and for God]”, or “we have been apportioned as an inheritance”. The idea is that the chosen remnant of Israel, the Jews who have their faith in Christ Jesus, including Paul, are an inheritance for Christ. That might sound strange, but scripture does talk about Christ receiving the nations as his Inheritance. Psalm 2:8 says “Ask of me, and I will make the nations your heritage, and the ends of the earth your possession.” In Isaiah 19:25, Deuteronomy 4:20, Deuteronomy 7 Israel is described as God’s inheritance. They are described as God’s treasured possession. What is happening here is that Paul is praising God and recognising that it is by grace that him and the Jewish believers, have been predestined, have been chosen to be God’s special possession. They would be God’s people in Christ. And the reason for God doing that is that they, who first hoped in Christ, would bring all glory and praise to Him. It is for the Glory of God. The outworking of God’s gracious purposes for the believing Jews is for his own glory.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택하심을 받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그리스도 예수에게 믿음을 둔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에 대해 말을 합니다. 11-12 절에서 “우리” 는 바울과 그와 같은 믿음의 유대인들을 일컫습니다. 13 절에서의 “너희” 는 이방인 크리스찬들을 일컫습니다. 14 절에 나오는 “우리” 는 이 두 그룹을 다 일컫는 것입니다. 바울이 11-12 절에서 말하는 것은 영어 성경에서 정확하게 번역되어 있지 않습니다. ESV 번역에서 나오는 바울과 믿음의 유대인들이 유산을 얻었다는 “we have obtained an inheritance” 보다는 그리스어 원본을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업으로 만드셨다 “we have been made an inheritance [by God and for God]”, 또는 “we have been apportioned as an inheritance” 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인 것입니다. 선택 받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과 바울을 포함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의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2:8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네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이사야 19:25, 신명기 4:20, 신명기 7 절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중한 소유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그와 믿는 유대인들이 예정을 입어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도록 택하심을 받은 은혜를 인식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신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 소망을 둔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믿음을 가진 유대인들에 대한 은혜로운 목적의 일하심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This same “apportioning to be an inheritance” is made true for the gentile believers as well. Verse 13, “ In him you also, when you heard the word of truth, *the gospel of your salvation*, and believed in him, were sealed with the promised Holy Spirit”.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느니”, 이것은 이방인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13 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나니”.

The gentiles Christians, Just like the Jewish believers, have heard the truth of the gospel, the gospel which saves, and have believed in Jesus Christ. They were sealed with the Holy Spirit. God gave the believers his

promised spirit as a seal. God's gift of the Holy spirit was a guarantee, was the deposit of their inheritance. And we know what a seal does, what a guarantee and deposit does. It is something which confirms a future promise or truth. By giving the Holy Spirit to Gentile believers, God is sealing them or stamping them, marking them as his own now. And he will protect them though trials and testings of life. And he who began a good work in them will bring them to completion at the day of Christ Jesus, because the Holy Spirit is a deposit guaranteeing their inheritance. It is a down payment, or pledge guaranteeing their future salvation in Christ Jesus. He is handing to us a proof of the future promises that there is in Christ. He is giving us a foretaste of the eternal glory that there is in heaven. The holy Spirit is working right now in our lives so that we can see the evidence of our inheritance. Apart from Christ, we would not be anything. Apart from Christ, we would not be God's special possession.

이방인 크리스찬들은 믿는 유대인들과 같이 구원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들은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선물은 보증이 되시는 것, 기업의 보증이 되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의 역할이 무엇인지 압니다. 미래의 약속을 장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 크리스찬들에게 성령을 주심은 그들에게 자신의 것이라는 도장을 찍는 것 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삶의 시험들로 부터 지켜주실 것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성령님께서 그들의 기업의 보증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미래의 구원을 보증하는 선금이고 서약 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미래의 약속들의 증거를 주시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있을 영원한 영광을 미리 맛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없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아닙니다.

All this, being made an inheritance for God, being his special possession, having been given the Holy spirit as a seal and deposit guaranteeing our inheritance, is for the praise of his glorious grace.(1:14) Friends, be assured, that if you are a believer, if you know Jesus Christ, if you have heard the word of truth, the gospel of salvation and believed in him, you have been sealed with the promised Holy Spirit. And it is living in you. Actively working in you. Empowering you to run the race that is set before you. And all the fruits of the spirit, is a foretaste of the eternal glory that there is in heaven and in Christ. It is proof that you are God's inheritance/special possession and you will obtain your inheritance that there is in Christ.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것, 그의 특별한 소유가 되는 것,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고 기업의 보증이 되어 주시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의 찬송을 위한 것입니다 (1:14). 여러분, 여러분이 믿음이 있으시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아시거나 진리의 말씀이나 구원의 복음을 들으시고 그분을 믿으시면 여러분은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을 확신 하십시오. 성령님께서서는 여러분 안에 계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경주를 달릴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계십니다. 성령의 모든 열매들은 천국과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원한 영광을 미리 맛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업/특별한 소유라는,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업을 받을 것이라는 증거 입니다.

Conclusion:

I am not sure about you. But blessing after blessing, after blessing, can be very overwhelming. I hope you do feel overwhelmed by the abundant, infinite grace of God. 3 times, it tells us, that all these things are according to his good pleasure, his purpose and they were for the praise of his glory. All these things, all

these theological truths, these truths about the identity of Christians and the church, is so that you won't forget who you are. What you are for. It is so that you would bring all glory and praise to him. What you need to do is praise God for all these things. You must live a life of praise and worship. You need to be praising God in your daily life. You need to be praising God in your families, your work place, your studies, in church and even in hardship and trials, because these truths are unchanging. They are foundational to the identity of who you are in Christ. Christians, the church, are a people who have been from all eternity, before the foundation of the world, been blessed with every single spiritual blessings that there are in Christ in the heavenly places. You have been chosen, adopted, redeemed. God has revealed the mystery of his will to you. He has made you his inheritance, a special possession and he has guaranteed that you are his inheritance, because you were sealed with the promised Holy Spirit. And you can never ever forget that. You must remember who you are in Christ. What Christ has blessed you with. And in every single moment, even in your darkest times, you can bet these truths on your life. Because God is unchanging. The identity of the church and Christians don't change. And he has planned all these things, all these truths from all eternity.

여러분은 어떠실 지 모르겠지만 축복에 이은 축복들이 벅차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넘치고 한계가 없는 은혜가 벅차게 느껴 지셨으면 합니다. 세번이나 본문에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쁨에 의해, 그분의 목적과 영광의 찬송을 위한 것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모든 신학적인 사실들, 크리스찬과 교회의 정체성에 대한 사실들은 여러분이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위한 사람들인지 잊지 않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 위함 입니다. 여러분께서 해야 할 것은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찬송과 예배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매일 매일 삶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고 가족, 직장, 학업, 교회 안에서, 그리고 고난 가운데서도 이 변하지 않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여러분의 정체성의 기본이 됩니다. 크리스찬들과 교회는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 입니다. 여러분들은 택하심을 받고, 아들들이 되고 또 죄 사함을 얻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비밀의 뜻을 여러분에게 알려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기업이 되셨고 특별한 소유가 되셨고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음으로 상속을 보증 받았습니다. 이것은 절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누구인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복을 허락하셨는지 모든 순간, 어둠속에 있을 때에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사실에 여러분의 인생을 걸어도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변치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교회와 크리스찬들의 정체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창세 전부터 계획 하셨습니다.

⁹ But you are a chosen race, a royal priesthood, a holy nation, a people for his own possession, that you may proclaim the excellencies of him who called you out of darkness into his marvelous light. ¹⁰ Once you were not a people, but now you are God's people; once you had not received mercy, but now you have received mercy.” (1 Peter 2:9-10)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 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벧전 2:9-10).

Amen

아멘

